

농촌·고향사랑 담아 물안개 피어오른다

전석홍 시인 제7시집 '상수리나무 교실'

소년시절 경험한 농촌 풍속 수놓듯 그려

'농기구열전' 우리문학사에 독보적 시도



‘상수리나무 교실’

전석홍 저자/도서출판 시와시학



전석홍

일상의 삶에서 조우하는 사연들을 정감어린 시어로 그려내고 있는 전석홍 시인의 제7시집 ‘상수리나무 교실’(도서출판 시와시학)을 펴냈다. 제6시집 ‘원점에 서서’를 출간한 지 2년만이다.

사춘기 시절부터 문학에 심취해온 시인은 공직의 길로 접어들어 전남도백과 정부 부처 각료, 그리고 정계에서 큰 족적을 남기느라 본격적인 집필활동은 다소 늦은 편이다. 그럼에도 풍성한 감성과 시적 영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펼쳐오고 있다.

그의 시 세계는 향토성과 인간애로 집약할 수 있다. 1-6집까지의 경향을 일별하면 대체로 향토성과 인간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언어들은 통글통글하고 순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서 작가의 심성이 드러나다고 볼 때 온후한 성정이 느껴진다.

이번 시집은 시인이 유소년 시절 겪은 농

촌풍속을 고향사랑의 마음을 담아 오색실로 수를 놓듯이 한담 한담 엮었다.

80여편 가운데 절반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견져올린 시편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고향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수천년간 농촌의 상징인 농기구에 대한 애환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유독 농기구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해오고 있다. 이미 28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시집에 농기구열전 36편을 새로 내놓았다.

“세간짐을 짊어진/우리 할머니/보리 썰어 살림고개를 넘을 때/한을 담아 돌리던/저 물레방아, 쏘아지는 물소리가/그 시절을 일깨우고 날아간다”(‘오늘도 돈다 물레방아’ 후반부).

시집해설을 쓴 이명재 평론가(중앙대 명예교수)는 시인의 이러한 작업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 문단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농

기구를 대상으로 연작시를 쓴 바가 없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시집에서는 또한 시인의 고향사랑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신새벽 아지랑이같이/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기운/월출산 골짜골짜/하늘로 하늘로 회오리쳐 솟아오른다/.../월출 영봉마다 기(氣)빛살 번뜩이며/당주골 고을고을 스며들여/집집마다 사람마다 생기 넘치고/뿌리깊은 문화꽃 향기 풍겨난다”(기(氣)영암).

이명재 평론가는 전 시인의 활발한 문학행보에 각별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평론가는 “80대 중반의 인생여정을 지낸 전 시인은 아직도 청년 버금하게 의욕적이다. 자유인으로서 문학동네에 귀의한 노현자(老賢者)같은 시인의 지혜로운 자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전 시인의 팔목할 성취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김다이기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

광주문화재단, 광주 기억하고 소개하는 도서 2종 발간

광주 곳곳에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한 데 모은 책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기억하고 소개하는 광주 관련 도서 2종 광주모노그래프Ⅱ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다’와 ‘광주의 지문Ⅱ’를 발간했다.

광주모노그래프 시리즈는 광주의 문화자산에 대해 대중적이고 흥미롭게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기획된 도서로, 전문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문화사적 배경이 어우러진 수필작품 6편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오래된 가게’를 테마로 해 소설창작, 문학평론, 문화이론 등에서 활동하는 필자들이 음반사, 사라진 서점, 예술의 거리 일대의 미술품 관련 점포와 음식점, 한책방 거리 등을 다뤘고 인촌교 씨가 사진작가로 참여했다.

문학평론가 김형중의 ‘옛날 옛적 청글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80-90년대 인문사회과

학 서점과 사람들에게 대해 담담하게 그려냈고, 김동하 작가는 ‘책들의 종점, 계림동 한책방 거리’라는 글에서 지금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한책방 사장들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재구성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화경 작가의 ‘세상의 모든 음악이 있는 곳’은 지금도 남아있는 오래된 레코드사에 얽힌 기억을, 범현이 작가의 ‘예술의 거리, 넘새는 시간을 거스른다’와 박성전 작가의 ‘오래된 식당과 한끼의 미학’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예술인과 시민이 만나고 스치는 예술의 거리 일대의 가게들에 대해 필자만의 감수성으로 담아냈다.

마지막으로 한재섭 작가는 ‘오래된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을 통해 백일사진부터 영정 사진까지 누구나 접하지만 동시에 예술의 영역이기도 한 사진관에 대한 사색을 그렸다.

‘광주의 지문’은 광주문화자산발굴 소모임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4개 팀의 성과물을 엮은 결과서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광주문화 백년대계’라는 공모사업을 통해 광주문화연구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소모임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광주모노그래프Ⅱ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3개의 인터넷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광주의 지문’은 비매품으로 광주의 일부 오프라인 서점과 공공 도서관을 통해 비치될 예정이다. /김다이기자

계간 ‘아시아서적문학’ 겨울호 출간

계간 ‘아시아서적문학’(발행인 김석문) 겨울호가 출간됐다.

통권 56호 이번 호에는 이성환 시인의 ‘온라인 시대의 문학 교육 제언과 다카시’라는 제목의 칼럼을 시작으로 특집 I ‘오늘의 문학’편에는 박덕은 전 전남대 교수의 다채로운 문학 경론이 그의 프로필과 함께 자세히 소개됐다.

특집Ⅱ ‘우수 문학동인 탐방’편에는 그가 지도해 배출한 ‘한실문예창작’ 동인 15인의 작품이 열정적인 후학 교육의 현장 사진과 함께 나란히 소개되며, 특집Ⅲ에는 ‘박준수 시인의 발길 머무는 곳 이야기 2’가 연재돼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제12회 아시아서적문학상’ 대상 부문에는 강중석(87), 김재욱(87), 변보연(86) 시인이 선정됐다. 이들 모두 늦깎기로 등단해 팔십 후반에도 끊임없는 열정을 발휘해 영예를 안게 됐다. /김다이기자

새로 나온 책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법륜 저자

이 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에 찾아온 청춘의 고민들 수백 건 중 공감에 높았던 이야기들을 추려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청년들의 주된 고민들인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화, 인간관계, 사랑과 가족, 진로와 사회 이슈 등을 법륜 스님의 화법으로 풀어내어 답았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묻고 답하는 대화 속에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여 풀아가는 ‘장(場)’이다. /정토출판·1만5천원.



▲라면의 재발견=김정현, 한중수 저자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음식들은 저마다 맛있는 냄새를 풍긴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 냄새도 라면 끓이는 냄새만큼 유혹적이지는 않다는 걸, 형제자매가 끓여 온 라면 냄비에 달라붙어 “한 젓가락만!”을 외쳐본 이들은 알 것이다.

비록 면을 직접 반죽하고 육수를 내 끓이는 ‘진짜’ 라면이 있지만, 또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의 발명품이지만, 한국인의 소울푸드 목록에서 라면은 뺄 수는 없다. /따비·1만5천원.



▲앞으로 5년, 집을 사고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삼토시(강승우)저자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빅데이터의 신을 믿어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더 믿고 보는 ‘빅데이터의 신’ 삼토시가 데이터를 근거로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했다.

여기는 이래서 좋고, 저기는 이래서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이 아닌 서울의 장기간 상승은 과연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지, 서울 외의 유망한 곳은 없는지 데이터로 분석했다.

부동산이 오르내리는 작동 원리를 세밀하게 짚어냈다. 이미 전작을 통해 입증된 분석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집을 사고팔 최적의 타이밍을 제시한다. /위즈덤하우스·1만5천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빌 설리번 저자/김성훈 옮김

‘내가 그런 말을 했더니 믿을 수 없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과 실제로 행동하는 자신의 괴리 때문에 납득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답을 과학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나’라는 한 명의 인간을 나답게 만드는 생물학적 힘을 밝힌다.

/브론스테인·1만9천800원.

안마의자 헬스기구 튜닝

당신의 건강한 Action

꿈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
가슴 벅찬 도전과 멈추지 않는 땀방울.
당신의 건강한 Action을 위해
실버랜드가 당신의 열정을 지켜가겠습니다.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 062)653-4141

S.L.T Silver Land Treadmill
www.slhealth.co.kr

태하런닝머신·다이나포스 – 웨이트기구 광주전남지사 헬스 & 실버랜드

목포 / 순천 / 여수 대리점 모집

대한민국 헬스기구 대표 브랜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전문점

Goldone 504 상업용기	Goldone 502 상업용기	GOLDONE - 501 상업용기	AF-GOLDONE 17.1" 상업용기
AF-GOLDONE 303 상업용기	AF-GOLDONE 301 상업용기	ROBUS-TV10L C 상업용기	ROBUS-6M 상업용기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주월동) ☎ 062)651-9944~3